춘천 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www.holycity.or.kr

발행인 : 이 원 호

2~3. 한국교회 해외선교의 새로운전략모색
4. 가정 · 교회 · 학교는 하나!
8. 사랑하는 딸 현경이에게
9. 우리 곁에 있는 山 삼악산

2007년 10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7호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좌 담



한국 교회의 효과적 선교전략 필요해...

참여자 : 이병철(주양교회, 능촌선교), 조영호(춘천그리스도의교회, 방글라데시선교회 회장), 최영조(갈릴리교회, 본보편집위원장), 홍경표 · 박은녀(캄보디아 선교사, 13년 사역)

진행 · 글정리 : 정재호 / 사 진 : 김미경

아프간 피랍사태로 기독교에 대한 한국여론은 물론 한국교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교계 지도자들의 염려 섞인 뼈아픈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장장 43일간의 아프간 피랍사태가 '2명의 피살과 남은 피랍자 21명 전원 석방'이라는 결과를 낳고 종결되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기선교나 봉사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교계는 해외 선교의 재점검과 함께 새로운 선교전략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아프간피랍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조 영 호목사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오는 위협을 전제로 하신 것이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다.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 공격적 선교는 위험한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다. 다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전략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 병 철목사

아프간 피랍사건은 우리 한국 교회 입장으로 볼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국 교회가 다른 민족을 섬기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렸다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물론 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선교 자체를 부정시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선교방법은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선교사를 동원하여 파송하는 것과 함께 잘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여 어떻게 선교해야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냉철하게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을 대신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 경 표선교사

이번 사태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아프간 피랍사건은 장기 선교사나 NGO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교회의 단기선교 혹은 단기선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10년 전에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IMF로 위기를 맞이한 것 처럼 한국 교회의 단기선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사실 '단기선교'라는 용어도 문제가 있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볼 때 '단기선교'보다는 '단기봉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에 잘 되지도 않는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말로전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또한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열매가 없다. 단기선교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수도인 프롬펜에서는 선교사역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위험요소가 많지 않다. 그러나 국경지역이나 옛날 크메르 루즈가 지배했던 지역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의 올바른 단기선교전략을 제시한다면?

★조 영 호목사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단기선교가 매우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무슬림지역에서 선교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는 두려움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런데 단기선교팀들이 와서 선교사와 협력하여 의료봉사와 구제사역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선교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단기선교팀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 지역의 선교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학교나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교에 대한 각오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협력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단기선교팀을 잘 활용해서 놀라운 선교적 실적을 거두었다. 무슬림지역의 주민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는 선교사를 도와줄 뿐 아니라 보호해주게 되었다.

★홍 경 표선교사

아프간의 탈레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미국과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인명을 살상한다. 그러나 내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참족들은 대부분 온순한 편이다. 극단적이지 않다. 한국 교회가 선교 및 단기선교의 전략을 세울 때 선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각 나라와 지역에는 법이 있고 관습이 있다. 법과 관습을 잘 알아서 대처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 영 조목사

이슬람국가나 무슬림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처럼 공격적 선교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단기선교팀들이 현지 선교사도 우려하는 선교사역을 감행하다가 오히려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 병 철목사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기선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단기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며 현지 선교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단기선교는 항상 현지 선교사의 조언과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선교사를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과제는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세계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효과적 선교전략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는?

★홍 경 표선교사

현재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뜨거운열정이 있다. 그러나 선교는 관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한국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수족처럼 쓰는 일군들을 선교사로 선발해서 보내야 한다.

★조 영 호목사

C국을 방문해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은 국내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분은 선교지에서 개척사역을 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또한

좌 담

한국 교회 해외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주는 교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 받고, 존경 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선교 정책의 재수립과 선교의 전문성 향상해야...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선교사에 대한 외교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현지에서 선교사가 아무 잘못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현지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자로 단정하여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 이병철 목사**

한국 교회의 영적수준은 바로 선교지의 영적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아프간 사태는 선교정책이나 선교사의 문제이기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한국 교회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최영조 목사**

춘천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세계선교관(MISSION PERSPECTIVES)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참여자가 적었다. 한국 교회가 올바른 선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목회자와 선교관련 담당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재호 목사**

얼마 전 필리핀 연합 그리스도교회의 선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코비 팜(Cobbie Palm)목사가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전체를 세계선교법정(World Mission Tribunal)에 고발한 적이 있다. 팜 목사는 고발장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성과주의에 함몰되어 기존의 필리핀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필리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선교 교회를 설립하고 기성 교인들을 빼내가는 이른바 양 도둑질(Sheep stealing)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해외선교정책을 수립할 때 선교지 원주민들과 현지 교회를 고려하는 성숙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선교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현지 교회를 앞세워서 협력, 지원하게 되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가 확신한다.

*** 홍경표 선교사**

현지 선교사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 현재 선교사들은 4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가진다. 1년 동안의 안식년은 선교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안식년기간에 건강도 체크하고 후원교회도 방문하고 영적재충전도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꼭 안식년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안식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안식년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1년이 안되면 몇 개월이라도 가졌으면 한다. 이 기간에 선교지를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선교지를 체험하면 좋겠다. 선교지 교회에서 설교도하고 현지 문화를 경험해보면 선교사역의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올바른 선교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정재호 목사**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건은 큰 아픔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한국 교회에게 주는 교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정과 순수함만으로는 선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한국 교회는 올바른 선교정책을 재수립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선교에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잘못은 잘못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선교사 168개국서 1만 4905명 사역

2006년 말 한국 선교사 1만4905명이 168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교연구원은 "국내외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 기준으로 보면 미국(6만4084명), 인도(4만6381명)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선교사 대부분이 국내 거주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송선교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 2위다.

한국 교회는 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 1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가 성장둔화 내지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선교단체 대표들은 한국선교의 약점으로 지원체제 미흡(45%), 선교 노하우 부족(25.2%), 전문인력 부족(24.3%) 등을 지적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선교사 케어(전방위적인 지원, 25%) 지도자양성(21.4%) 연구개발(18.8%) 선교사훈련(16.1%) 선교사 자녀교육(9.8%) 후원기반 확충(8.9%) 등을 꼽았다.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가정·교회·학교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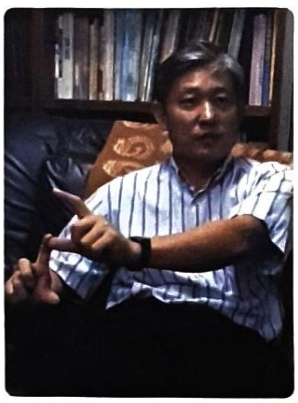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 없느니라"

차성도 교수(현재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홈스쿨링, 기독교 원안학교인 V-School, 에수촌교회를 섬기고 있다. 아내 임효실 자매와의 사이에 아들 진영, 진성을 두고 있다.)를 만나러 가는 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우산 속에 몸을 피하고 그의 교수실로 향했다.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차 교수. 그와 만남은 편안한 담소로 이어졌다.

홈스쿨링에 대한 차 교수의 인상적인 한 마디,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체득한 우리는 자녀에게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시키려고, 좋은 학원을 찾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심지어 부모와 온 가족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이가 적다."는 말이 나의 입을 열어 많은 것을 묻게 만들었다.

홈스쿨링 시작

차 교수는 세상지식을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공교육에 대한 회의를 갖던 중 안식년으로 98년 미국에 갔을 때, 가정교회(House Church, 가정교회사람들은 대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를 방문하게 된다. 그곳에서 밝고 명랑한 아이들을 접할 수 있었고 신앙으로 양육 받는 건강한 아이들을 통해 도전을 받았다. 귀국 후 아내와 자녀들의 홈스쿨링을 상의했는데, 1년간 고민하다가 아내도 그에게 등의해 주었고, 진영이도 기도 끝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 그들은 2002년 진영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된다(School at Home: 학교에서 하는 교육방식을 장소만 옮겨 집에서 하는 것, Home Schooling: 아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교육, 홈스쿨링을 통해 차 교수의 첫째 아들 진영이가 음해 카이스트에 들어갔다. 그러나 차 교수는 홈스쿨의 의미와 과정보다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한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애써 이 사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나 역시 그런 의미로 쓰지 않는다.).



흔히들 대안교육 하면 문제아 교육의 경우 외에는 대부분 영재교육이나 엘리트 교육의 방편으로 치우치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외로운 결정이었으리라!

홈스쿨링은 제자화 교육



차 교수는 홈스쿨링의 여러 장점을 깨닫게 되면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도 제안하게 되어 교회에서는 방과 후에 학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After School)를 먼저 시작했고, '한 아이가 잘되려면 온 마을이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외국속담처럼 기독교 교육 공동체인 "브이 스쿨"(Village School:부모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품앗이 하듯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일주일에 한번 씩 집을 교실로 쓸 수 있도록 빌려주고 배우는 학교)을 전일제로 확대하였다. 교회학교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섬김 학교(이기적인 아이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자 밀기 임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봉 받는 환우들을 봉사)와 솔로몬 학교(가르치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며 토론과 탐구방식으로 즐겁게 창의력을 증진시킴)가 브이스쿨을 시작하는 모태가 되었다고한다.

차 교수는 홈스쿨링을 말함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원래 하나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인 제자 삼는 운동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다른 이들을 또 제자 삼는 것(To be Disciple, To make Disciple!)인데, 이는 바로 자신의 자녀를 제자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눅 2:52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처럼 신앙 · 지성 · 인성 · 체력의 네 영역이 골고루 성장해야함을 강조한다.

모판과 같은 부모

차 교수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기에 주일학교(Sunday School)가 아닌 교회학교(Church School)가 되어야하며, 성경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면, 신앙적인 면, 인성적인 면, 신체적인 면이 골고루 자라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부모들이 각자 은사를 따라 과목을 맡아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어떤 부모는 홈스쿨링의 정신을 따라 매일 아침 7시에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관에 가서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수고를 했단다. 이것이 너무 보기가 좋았던 차 교수는 과학과 수학 담당이었지만 일 년간은 아이들과 함께 아산에 오르는 체육활동으로 수고했다고 한다. 홈스쿨링의 우려에 대해 차 교수는 모내기의 예를 들었다. 병해에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에다가 직접 볍씨를 뿌리지 않고 못자리에 뿌려 모를 내는 것과 같이 교육상황이 인본주의 이다보니 학교라는 노출된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와 신앙으로 보호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청소년기는 모판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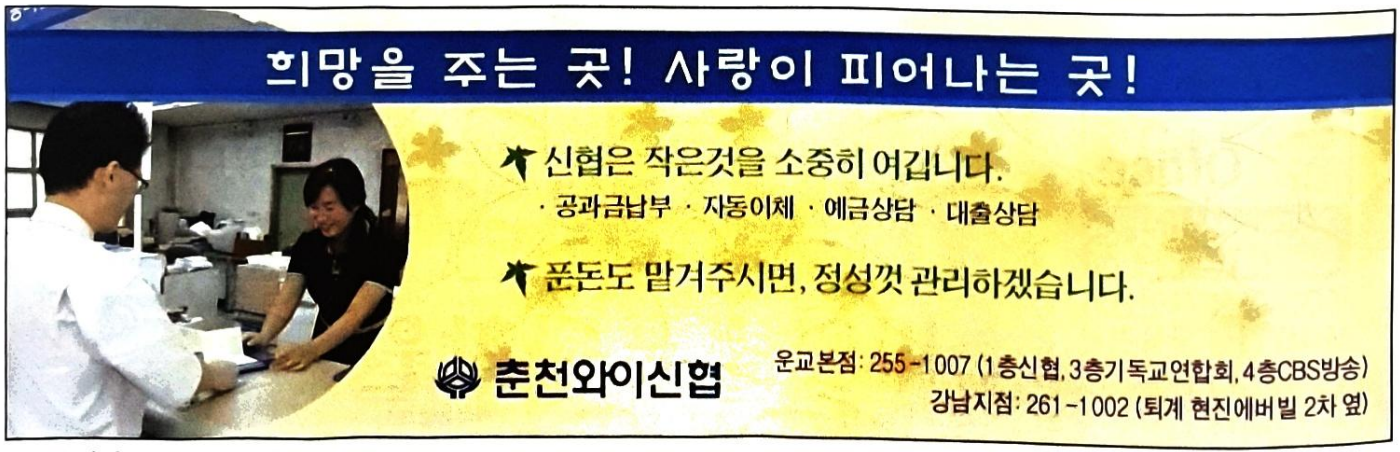


회 복

차성도 교수는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또는 과외 선생님들에게 교육의 책임을 넘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에게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하기에 대안이라는 말 보다는 원안이라는 말을 쓰기를 원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기에 그 목적이 지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었다. 교수실을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벚속에서도 가벼웠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주님의 병기를 든 그(armourbearer)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삼상 14:1-18).

• 홈스쿨링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chasung@kangwon.ac.kr로 문의.

[취재 · 이영규, 사진 · 김미경]



성 시

2007 한해를 감사드리며...

2007년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의미를 두고자 했던 한해였습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넘기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도, 사역훈련도 올해는 잠시 접고 전 교인이 성경에 깊이 잠기기를 소망하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아 반성하고, 미래 10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 기도하는 해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독교연합회 총무 일을 맡게 되어 난감했고, 당혹스러웠지만 감당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성탄절연합축하예배를 시작으로 신년교례회, 그리고 십자가대행진으로 이어지는 연례행사가 결코 간단치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대과없이 지났다고 생각한 것은 흠로목회에 침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를 묻지 않고 변함없이 연합의 길에서 힘껏 함께해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대행진 행사를 앞두고 매일 같이 반복된 장로님들과의 새벽기도회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춘천 성시화는 바로 이분들의 작은 기도가 모여져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현재 내가 서있는 자리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합회 마지막 행사가 될 2007년 선교대회는 소중한 의미로 장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 힘을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행사를 치러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일저녁 집회와 3일간의 선교 부흥회는 두 분의 강사님 모두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에 집회를 위한 부수적인 몇 가지 일만 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성시 ·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찌면 선교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이 기도해 온, 그리고 비전으로 삼아온 "성시화"를 어떻게 구체화, 혹은 현실화 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와 과연 21세기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너무나 중요한 현재와 미래적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블행히도 이를의제로 삼기에는 우리의현실이 힘들고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정체와 현실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이영길 선교사님이 두 단어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변혁'과 '영역'이라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 두 단어를 섭렵하기에 우리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분명 이는 춘천의 미래를 희망으로이끌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이었고, 실천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보아야 할 고전이었습니다. 적어도 비어가는 성시의 내면에 충분한 알맹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이스 부시와탐 빅터는 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 단어속의 춘천을 측븍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춘천이 이 두 단어를 소중히 간직하고 겸손히 실천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연합회의 회기를 마감하면서, 또 선교대회를 마감하면서 머리속으로 스며드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의 "전략적인 희생"이 없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잦아드는 성시의 불은 다시 피어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의인"이 "전략적인 희생"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을 다시 피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불기(不羈)"였습니다.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를 벗어야 연합이 보이고, 웃음도 나지 않겠습니까?

연합회의 일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 한해를 기꺼이 감사드립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이주호 목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시121:1~8)

선교 찬양
율동 연구원

조 순 례

아름다운 사람들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여
감격의 두 손 높이 들어
영광중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시다.
영원한 과녁이 여우리인
아름다운 선택의 축복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사람들아!

† 대 상: 초교파, 찬양율동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 장 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및 강의실
† 강 의: 매주 월, 화요일
† 문 의: 033)1313-7848
H.P 011-7313-7848, 019-532-7720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Foot Care
발 관 리 샵

⊙ 족심도
★ 어린이용
★ 오십견
★ 무릎관절
★ 수족냉증
★ 어깨통증
⊙ 체지방관리
⊙ 피부관리

※족 심 도(족부반사구요법)
중국의학에서 유래된 족심도는 발에 분포되어 있는 혈도를 자극하여 병을 예방하고 이미 발병된 병의 증세를 완화해 줌으로써 치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강법

★ 일반 발맛사지와는 다릅니다.
족심도는 전단 및 증세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박 영 란 춘천시 퇴계동 금호 2차A 상가2층
Tel: 033)262-8575 HP: 017-332-6346



새들백교회 (Saddleback Church)

미국 남가주에 있는 새들백교회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회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의 저자로 알려진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담임하는 새들백교회는 그야말로 '목적이 분명한' 교회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2500만부나 팔렸다.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나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매주 20,000명 이상)도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교회가 개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역의 원리들을 살펴보면 역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교회탐방 새들백교회 편입니다.

신선한 모델

복음은 변함없으나, 방법은 바꾸어져야 한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시들어 가고있다. 웅장한 교회당이 다른 종교의 건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 교회도 정체 상태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차츰 줄고 있다. 그러나 모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와 새들백교회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어 세계 교회의 큰 관심을 일으키고있다. 새들백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적 경험을 가진 신자가 아닌 이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자들이라는데 있다. 이중약 1천여 명은 핵심 멤버로 사역에 헌신하는 신자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단순한 신자들이다. 요즘 신자들은 "소비자중심주의"에 익숙해서 신자들이 "교회를 골라잡으려는" 생각으로 교회를 돌아다닌다. 그러나 신자들만 나무라지 말고,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도자의 책임도 통감하여야 한다고 릭 워렌은 지적한다.



릭 워렌의 사명



릭 워렌 목사의 부친 지미 워렌 목사는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미워렌 목사는 생전에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등에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교회당을 짓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수주일 동안 아들 집에 머물렀다. 릭 워렌 목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해" 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릭 워렌 목사의 가슴을 때렸다. 지미 워렌 목사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바로 생명이 있는 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다가가란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릭 워렌 목사는 과연 어떤 결심을 했을까? 대답은 자명하다. 그의 말처럼 남은 인생동안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 진력할 것을 결심했으리라.

사역의 증가

1980년에 시작된 이 교회는 지난 27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어느 순간 급속도로 부흥한 교회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담임목사인 릭 워렌의 뛰어난지도력과 교회사역에 대한 새로운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왔음을알 수 있게 된다.

새들백교회의 예배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건물까지 길게 서 있는 봉사자들의 환한 웃음과마주치게 된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만나 기뻐하는 듯한 반가운 표정의 인사가 처음 오는 이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가벼운 얼굴 표정만이 아닌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악수를 청함 받기도 한다. 예배를 드리는 워십 센터(Worship Center)로 들어가면 좌, 우에 커다란 대형화면이 크게 눈에 들어오며 산뜻하게 보이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다. 전통적인 예배당을 상상했던 사람이라면 새들백교회 예배실의 모습은 새로울 수밖에 없다. 좌우에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벽을 통해 구름과 햇살을 볼 수 있고, 대형화면을 통해 비춰지는 영상들, 천장 위에 가득히 붙어있는조명들을 보자면 공연장에 온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왼쪽 대형 스크린 옆에 커다란 십자가가 서 있지만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예 배

예배가 시작되면 사회자의 간단한 환영 인사말 후에 화려한 연주와 함께 찬양이 시작된다. 새들백교회의 예배 인도자의 인도로 경쾌하고 밝은 현대적 음악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이 불리어지며, 때에 따라 40~50명의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한다. 이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들은 대부분 찬양사역자들과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찬양들이 많다. 때로는 전통적인 찬송가들을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이때는 현대적 음악 스타일로 편곡된 연주가 곁들여지게 된다. 15분 정도의 찬양이 끝나고 나면 담임목사의 감동적인 설교가 시작된다. 커다란 대형화면을 통해 설교의 내용이 요약된 문장과 성경구절이 비춰지게 되며 간단한 예화 같은 내용을 담은동영상도 설교내용에 따라 준비되어있다.



설교가 끝난 뒤 사회자가 헌금봉투와 함께 놓여 있는 메모 카드를 보이면서 처음 방문한 이들은 신상을 기록하도록 권유받으며, 기존 성도들에게는 기도요청, 심방요청, 자원봉사 신청 등의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그 메모카드의 명칭은 '커뮤니케이션 카드'이며, 그 이름 그대로 예배에 참석한 이들과 교회가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도구이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반기는 그룹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자원봉사 부서들이다. 워십 센터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각 봉사부서의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의 봉사가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들이 놓여 있으며,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

새들백교회의 비전

새들백교회의 비전은 이렇다. "우리의 꿈은 상처 받은 사람들, 어입 받는 사람들, 좌절된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납, 도움, 소망, 용서, 인도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다만 새들백교회만의 꿈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꿈이며 세상을 향해 이룹 목표이기도 하다. 새들백교회의 이러한 모델이 춘천의 교회들에게도 의미있게 접목되기를바란다.

[편집부]



2007 춘천시 장로교 연합회 부흥성회

◈ 일 시 : 2007년 10월 28일(주일) ~ 31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춘천제일교회(박상호목사 시무)
◈ 강 사 : 이동현 목사(광주 평화장로교회)
◈ 제직 세미나 : 10월 30일(화) 오후 2시
◈ 목회자세미나 : 10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ir
(싸이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너레터적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잡플릿)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 역사자료

춘천성시화운동의 도약 (略史6)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본부초대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초대 성시화 지도목사에 김주환 목사

1996년 6월 8일 "춘천홀리클럽"이 탄생, 이 모임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를 지도목사로, 조남진 장로를 초대회장으로, 전용태 장로를 고문으로 하여 새신자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나갔다. 법원장에 양인평 장로가 부임하자 홀리클럽 육성에 함께 힘을 모았고, 안기부 지부장 이범찬 안수집사 역시 참석하게 되어 춘천홀리클럽은 활발하게 성장해 나갔다.

소양강댐에서 유립선을 임대하여 선상부흥회를 가졌던 일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춘천홀리클럽 운동은 전용태 · 양인평 두 장로가 타지방으로 전임해 가면서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구성원이 타교회로 옮겨가거나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이곳 홀리클럽 운동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 타지방에 가서도 훌륭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뭉클한 감동을 받는다. 춘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임해 간 전용태, 양인평 장로는 춘천에서의 성시운동을 그곳에서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홀리클럽 운동은 새신자운동에서 성시화운동의 평신도 지도자 단체로 성격을 바꿔 놓았다. 즉 성시운동본부는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성시운동을 돕는 평신도지도자 모임으로 홀리클럽을 만들어 협력해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홀리클럽은 청주인천 대구는 전용태 장로가, 대전 부산은 양인평 장로가 부임하여 성시운동을 일으키면서 성시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을 세워 훌륭하게 성장해나갔다. 청주대전 부산에서 성시운동을 일으키면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를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려가 이야기를 나눴던 일은 큰 감동과 함께 기억이 새롭다. 이렇듯 전국적인 추세가 성시운동본부는 목회자들이, 홀리클럽은 평신도들이 맡아 성시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춘천성시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이었던 조남진 장로가 임택창 목사에게 자리를 넘기고, 그후 다시 윤철중 목사가 맡는 등 목회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춘천홀리클럽 역시 처음 새신자중심에서 성시운동에 뜻을 가진 각 교회 장로들로 체제가 바뀌었으며, 조남진 회장이 월드비전 부회장으로 상경케 됨에 따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허천 장로(현 국회의원)가 회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다. 그 후 조은제 목사(당시 베드로병원장 · 현 일본선교사)가 회장에 취임했으나 일본선교사로 떠나게 됨에 따라 성시본부 조영춘 사무총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다.





이학규 장로 회장 취임 후 활기

2005년 12월 이학규 장로를 4대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정체했던 춘천홀리클럽이 활기를 띄며 활동하고 있다. 이학규 장로와 사무국장을 맡은 김영명 장로의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일을 감당해 오고있다. 2006년 6월 8일 춘천 홀리클럽 10주년 행사에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를 주 강사로, 포럼 강사에는 명성훈 목사(성시교회)를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2007년 6월 8일 11주년 기념행사에도 주 강사로 김학준목사를 모셨고, 포럼 강사에는 허문영 박사(민족통일연구원)를 초청, 뜻있게 행사를 치렀다. 춘천홀리클럽은 앞으로 청년 홀리클럽, 여성 홀리클럽을 창설, 폭 넓은 평신도 성시운동 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끝]

| 영혼의 양식

사시는 하나님의 종, ○○○야!

– 단 6:16 ~ 23



김 종 익 목사
(춘천광명장로교회)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부활절이 가까워 오면 가룟 유다의 인형을 만든다고합니다. 간혹 사람 크기보다 큰 것을 집 밖에 세워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후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에 그 인형을 다 태워버리고 부활절 축제에 참여합니다. '배신의 정신을 태워버린다'는 뜻이라고하는데 의미있는 풍습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과나 자신은 분명히아는 '배신'을 저지를 수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만한일을 관행이라고 그저 쉽게 처리해버리지 않습니까? 혼자 뛰는 것이 불안하고 미안해서 그냥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애쓰면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알면서도 귀찮고 힘들어 포기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일터에서 유다처럼 '배신의 밤'(30절)을 헤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비하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보다더 어려운상황에 처해있었는데도, 다니엘은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체험하는 복을 누렸고,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다리오가 선포한 종교행위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형될 것을알면서도, 종전대로 자기방중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항상 섬기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16,20,23절).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인정할 정도로, '사시는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의뢰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비겁자가 아니라 떳떳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하게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항상 섬기는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받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바라보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신자들로부터도 '사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능력의 종이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친절, 구매 언제나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창의레고 / 놀이수학 / 한글
논술동화 / 델타샌드 / 가베
하바 / 수학가베 / 바우픽스
킨더맥스 / 동화구연
※대상: 유아-초등 전연년
BLOCK HOUSE
블록하우스
(애막골 교육원)
차량운행
☎261-7856
위치 애막골 두산아파트 맞은편 상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사랑하는 딸 현경이에게...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엄마의 편지

현경아, 엄마는 네가많이 보고 싶다.
'딸깔깔' 너의 웃는 소리가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

8월 15일 아침, 우리는 놀러가는 것이 즐거워 튜브도 챙기고 갈아입을 옷도 챙기며 너무 즐거워했었지. 그날따라 너희 셋을 잉 둘러 앉혀 놓고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송을 부르며 서로 안아주었지. 몇시간 뒤에 일어날 사건을 모른 채 우리는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엄마는 교회 건축과 너희들을 위해 새벽기도 작정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엄마는 망연자실하며 무심히 흐르는 물만 쳐다보고 있었어.



엄마 아빠는 현경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어. 너희셋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는 너무 든든했단다. 자고 있는 너희들의 볼을 비비고 손을 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하소서' 라고...

현경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자랐단다. 4년 동안 동생이 없는 현경이는 혼자사랑을 독차지했고, 에드로성교원, 샬롬 유치원, 갈릴리곤부양, 라나델아기피아 스쿨, 피아노 학원에서 모든 사랑을 듬뿍 받았단. 너는 사람들 눈에띄는 똑똑하고 자기생각과 주장을 뚜렷이 말할 줄 아는 아이였어. 엄마는 너의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했단다.

현경아, 엄마의 가장 큰 위로는 엄마딸이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다. 새벽기도 다녀와서 6시 30분에 너를 깨우면 그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엄마 손을 잡고 욕실로 데리고 갔지. 어떤 때는 너무 안쓰럽고 측은해 보였지만 너에게 정말 중요한 습관을 들여 주고 싶어서였단다.

현경이가 '약할 때 강함되시네' 반주를 하며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렸지.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그 시간이 엄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예배시간, 아침에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구나. 현경아 너는 아름다운 꽃이야. 진한 향기를 뿜기며 떨어졌지만 그 향기는 영원토록 모든 이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너를 떠나보낸 하루하루 엄마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미어진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감싸주신다. 엄마는 천하보다 귀한 현경이와 원혁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으셨다고 믿는다.

현경이와 원혁이가 교회를 위해 밀알로 드려졌지만 또 다른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믿는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다.

현경아, 너를 통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언젠가는 가야할 그곳을 현경이, 원혁이가 먼저 가서 보고 싶긴 하지만 눈물과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한다.

현경아, 원혁아 천국에서 만나자.
화살같이 빠른 세월, 아빠 또 엄마도 희락이와 희찬이도 즐겁게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2007년 9월
현경이를 그리워하는 엄마가.







이 편지는 지난 8월 15일 물놀이 사고로 큰 딸 현경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사랑하는 딸을 그리워하며 엄마인 양선미 집사께서 쓴 편지이다. 유난히 똑똑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했던 현경이의 사고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었다. 주를 믿는 성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은 한 알의 밀알처럼 드려진 현경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경이네 가정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는 이웃의 고통을 돕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 때문이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자니라"(마18:3~4)

[편집위원 · 최 영 조]

자연유치원은 귀한 자녀의 첫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SINCE 1993 JAYEONKINDERGARTEN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신입 원아모집
* 입학연령 : 2004. 3. 1~ 2005. 2. 29
* 모집기간 : 2007년 12월 1일(선착순 모집)
* 특 전 : 개척교회목회자자녀교육비 전액감면
* 문 의 : www.cyworld.com/jysince93
☎ 241-5511 / 5522
jysince93@hanmail.net


원장 이관형

1993년 은광유치원 개원
(현, 자연 유치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미술치료사, 독서치료사, 아동청소년 상담사,
유아체육지도자, 스피치지도자

(부설)인성미술치료진단연구소/ 신바람길거리응변교육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우리 곁에 있는山 - 삼 악 산



춘천에 위치한 산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산,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산이 삼악산이 아닌가 싶다. 춘천 시민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올랐음직하다. 이 산에 대한 찬사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물과 산이 가장 행복하게 만나는 곳에 위치한 삼악산", "완쪽의 조망, 정상능선의 짧은 암릉 재미, 소나무와 암릉의 어울림은 그대로 풍경화", "의암호 옆의 규모 큰 수석같은 산" 등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름의 유래

강촌역 맞은편에서부터 북한강을 끼고 의암호까지 자리를 차지한, 춘천시 서면에 있는 삼악산은 용화봉(654m)과 청운봉(546m), 등선봉(632m) 세 봉우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보통 용화봉을 삼악산으로 부른다.

등산로



대개의 등산객들이 향하는 봉우리는 주봉인 용화봉.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은 등선폭포 매표소나 의암댐 매표소를 통과하는 것이다. 등선폭포 매표소에서 정상(용화봉)까지 3㎞가 조금 넘고, 의암댐 매표소에서 정상까지는 2㎞ 조금 넘는다. 하지만 의암댐에서 오르는 길이 경사가 급하고 험한 대신 등선폭포 오름길은부드러운 편이어서 오르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등선폭포로 오르는 길은 처음부터 비경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공적으로 만든다 해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극적일 수 있을까? 협곡으로 난 길을 따라갈 때, 꼭 무릉도원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이어지는 폭포는 더욱 신비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러나 이렇듯 신비한 길이 끝나면 정상까지 별것 없는 평범한 산길이 이어진다.



반면 의암댐으로 오르는 길은 평범한 산길로 시작하여 힘에 겨운 급경사 암릉을 오르게 되면 숨을 헐떡거리며 아주 힘들어 하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의암호가 보이며 춘천시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시작되면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오르다 뒤를 돌아보기를 계속하며 정상까지 이른다.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 두 코스는 모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고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는 길이 있고, 처음은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곧 사라지고 거친 숨소리만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산길은 그렇게 묵상하면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영성훈련의 장이 된다.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계관산, 북배산을 거쳐 화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동북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붕어섬과 중도, 상중도를 품은 의암호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 호수 너머로는 춘천시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금병산, 대룡산, 연엽산, 구절산의 산줄기가 아련하다.



등선봉

높이 632m로, 삼악산을 이루는 3봉우리 중 하나로, 삼악산 서쪽 북한강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등선봉은 넓은의미의 삼악산에 속하지만 독자적인 산행이 가능하다. 대체로 암릉과 암봉으로 이루어져서 산행 후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삼악산이 정상을 중심으로 산괴가 몰려있는 형세인 반면 등선봉은 능선을 이루며 길게 뻗어있다. 그래서 누구나 기억하는 삼악산 정상부에서 맛보았던 짧으나 아름다웠던 암릉이 등선봉에서는 길게,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악산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다. 그러나 다섯 개 정도의 봉우리와 절벽과 같은 바위가 산재해 있고 급경사가 있어서 등산경험이 없는 분들은 힘에 겨운 코스이다.

산행기점은 강촌교 북단에서 가평 쪽으로 10m 지점에 있다. 도로에서 408m 봉우리까지는 경사가 급한 능선길로 30분가량 오르면 주능선에 도달하며 능선봉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대체로 평탄하다. 408m 봉우리를 지나 첫 고개에 큰 바위가 있으며 왼쪽으로 돌아간다. 450m부터 정상인 632m 봉우리까지는 1시간정도 걸리며, 암봉은 거대한 단애(斷崖)가 형성되어 있고 울창한 송림으로 뒤덮인 정상이 보인다. 노송이 우거진 평탄한 지대를 지나 경사길을 오르면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섞여 있는 좁다란 평지의 정상에 이른다. 등선봉 능선은 줄잡아 5개 정도의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마지막 봉우리에서 흥국사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급하다. 산행시간은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이어서 용화봉을 올라 의암댐으로 가는 종주도 가능하다. 종주시 산행시간은 5시간 30분이다.

안내

* 1코스 - 용화봉등선폭포 - 흥국사 - 정상(해발 654m) - 상원사 - 삼악산장 - 의암호(소요시간 3시간)
* 2코스 - 등선봉등선폭포 - 흥국사 - 삼악산 성지 - 등선봉(해발 623m) - 강촌삼거리(4시간 30분)
* 3코스 - 종주코스(용화봉, 청운봉, 등성봉)의암호 삼악산장 - 상원사 - 깔딱고개 - 정상(용화봉 654m) - 삼악산성지 - 등선봉 - 강촌삼거리(5시간 30분)
* 역순으로 하는 산행도 가능하다.

유적지 - 이 산중에 유적지가?

삼악산에는 삼국시대유적지가 있다. 삼국시대 산성터인 성지(城址)이다. 춘천과 서울 간의 역로(驛路)였던 석파령이 내려다보이는 삼악산성은 천혜의 지형을 이용해 부분 축조된 것으로 폭 1.3m 길이 1.5㎞의 성지로 이어져 있었으나 현재에는 470m 정도만 남아있다. 용화봉과 청운봉 사이, 즉 등선계곡 좌측 삼악산의 2봉(청운봉) 정상을 따라 축성되어 있다. 성곽은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진행되며, 자연지형에 따라 높이 1~3m, 윗부분 폭 0.8~1.8m 규모의 석축성이 능선을 따라 동서로 약 5㎞정도 길게 뻗어 있다. 다듬지 않고 산상에 널려 있는 깨진 산돌을 이용해 쌓아가면서, 바위가 돌출된 부분과 절벽부분은 성벽을 쌓지 않고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산성의 서남쪽으로는 대궐터라 불리는 넓은 터전이 있고, 주변에는 기와조각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기와조각들로 보아 축성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 경명왕(景明王) 2년(918)에 태봉(泰封)의 궁예(弓裔)가 철원에서 고려 태조 왕건(王建)에게 패하고 샘밭 삼한골(현재의 신북면 발산리: 新北面 鉢山里)을 거쳐 이곳으로 후퇴하여 패잔병과 함께 피신처로 사용하였던 근거지라고 한다. 또 삼한시대 맥국(貊國)의 성지(城址)라고도 한다.



이산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이 산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외지 사람들의 찬사와 같이 아름다운 산하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춘천이 한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성시신문에서 춘천시를 둘러쌓고 있는 산들을 연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춘천을 바라보고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조망터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 시내산 위의 모세처럼, 감람산의 예수님처럼. 앞으로 신앙인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산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위원 · 고 재 만]

참 · 치 · 세 · 상
행복이 있는 참 치 세 상

여러분을 참치세상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윤 기 천
예약 · 문의) ☎ 033-264-1335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 내 중간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춘천정시화운동본부

성경안에서 바라본 예술



면류관속의 라일락 향기 / 이석윤 화가作 / 수채화20호

우리는 신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것이 신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어져가고 삶의 행복도 고난도, 자연의 섭리도 그러합니다. 순수한 라일락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대비시켜 아름다운 희생을 표현해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예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구원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작품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 53장)

가을날의 기도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감사는 온 날이 감사인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사
절대적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만 있었던 것 아니듯
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고운 바람이었던 것만은 아니듯이
천둥과 번개치던 먹구름 가득한 하늘도
폭풍우 몰아치던 거센 비바람도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기 위한 가을노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로만 그 존재를 알고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만 비로소 감사를 합니다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실체임을 이야기하면서도
고난의 길 안에 감추어진 실체가 축복임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엔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의 과정임을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시 · 초록바람 **한 인 순**(춘천한길교회)

| 건강상식



안구 건조증



참빛안과 **곽 정 준** 원장(춘천온누리교회)

안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무엇일까? 바로 '안구건조증'이다. 과거에는 안구 건조증이 주로 노년층에 국한된 질환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청장년층에도 일반적인 질환이 되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이 질환이 모든 연령층에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루 종일 소량씩 일정하게 분비되며 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본눈물'과, 눈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불규칙하게 분비되는 '반사성눈물'이다. 안구 건조증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기본눈물이 부족한 질환이다. 그 결과 눈을 보호하는 눈물장벽이 약해져서 따갑고 가렵고 충혈되고 침침하게 보이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본눈물이 부족하게 되면 안구 표면에 염증이 유발되고 이것은 다시 눈물 분비를 감소시켜 결국 악순환에 의해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노년층은 기본눈물의 분비기능이 약해져서 발생하지만, 청장년층은 분비기능은 정상이지만 눈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기본눈물이 증발됨으로써 기본눈물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컴퓨터나 서류 작업, 운전, 냉난방, 컨택트렌즈의 장시간 착용, 실내공기가 탁한 곳에서의 장시간 작업,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다. 즉 청장년층은 환경적인 요인이 안구 건조증의 주원인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10여년 전에 비해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대상이 점점 청소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구 건조증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부족한 기본눈물을 보충해 주는 것인데 이런 용도의 안약을 '인공눈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공눈물은 눈물의 모든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넣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므로 하루 2~4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눈물로 증상 호전이 미약한 경우 항염증안약을 같이 사용하거나 눈물점을 막는 치료 등을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장년층의 경우 작업환경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과도한 냉난방을 자제하여 실내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컴퓨터나 서류 작업을 할 때 자주 눈을 쉬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컨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산소투과도가 불량한 칼라렌즈나 서클렌즈의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최근 주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이 늘고있는데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보다는 즐거움을 찾아 더욱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패턴이 일반적인 것 같다. 점점 복잡해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의 재충전을 하는것은 어떨까?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 부부행복학교

글 · 춘천지부 조경한 안수집사



"왜 진작 우리 부부가 이런 행복을 몰랐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기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없이 웃고 울고 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아내 성화에 억지로 참여했는데 안했더라면 평생 후회할 뻔 했습니다."
"믿지 있는 가정만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젠 가정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넘쳐나는 사랑과 행복, 살맛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부부행복학교 훈련과정에 참여했던 부부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지구촌가정훈련원(원장:이희범 목사)이 진행하고 있는 부부행복학교는 더 큰 행복을 소망하는 부부, 부부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부부, 가족관계회복을 기대하는 부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원하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부부성경공부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춘천에도 그 지부를 두고 있다.



워크숍은 보통 4~5쌍의 부부들이 격주에 한 번씩 리더부부의 가정에 모여 성경적 부부의 원리, 부부갈등과 예방, 부부 커뮤니케이션, 성스러운 성, 자녀교육 등 12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하며 부부관계를 회복,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리더 부부들은 부부행복학교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마친 훈련된 정예 요원들이다. 서울본부 및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리더 부부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참가자들과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행복을 제시, '결혼구조대원'의 역할을 한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아픔을 토해내느라 참가자들은 밤을 지새는 경우도 종종있다.

우리 주변에는 표면적으론 행복하게 보이지만 남남처럼 무덤덤하게 사는 부부들, 독신처럼 별방하는 사람들, 날마다 싸우며 사는 사람들, 폭력으로 대화가 막힌 사람들, 마음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상처 속에서 날마다 우는 사람들, 늘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 기술(Art of Loving)입니다.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안내]
지구촌가정훈련원 서울본부
TEL : (02)494-0691

[춘천지부]
TEL : (033)254-1004
조경한 안수집사(소양성결교회)

예 향

소 명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인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이 있다. 전 세계 23개국에 지부를 두고있는 이 선한 단체는 미국 스완슨 목사가 한국전쟁 중인 1952년도에 미군들을 위한 집회 인도를 위해 방한한 것에 기인한다. 스완슨 목사는 종로 부근의 어느 숙소에서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담는데 청소부들이 던져 넣는 쓰레기 가운데 어린 아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 나갔다. 직접 쓰레기 위에 올라간 스완슨 목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에 가득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 밤 거리에서 얼어 죽은 전쟁고아들의 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하는 것이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와 시작한 것이 "컴패션"(긍휼사역이었다. 그를 통해 수십만의 전쟁고아들이 살게 되었고, 삶을 열어가게 되었다.

성시신문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 춘천성시신문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 성시신문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 11월까지 춘천성시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문의 : T. 033)256-1260~1
  F. 033)257-1260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hanmail.net



입은 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미술치료 기본과정 모집

◆ 미술치료 기본과정

개강일시	교육기간	수강료	강의내용
10월 말경	매주 월요일(12주) 오후6:30~9:30	20만원	매체에 대한 이해와 실습 및 기법

※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수련 시간 인정과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기법
※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 기타과정

강좌명	교육기간 및 시간	수강료
노인요양보호사2급	16주(월, 오후6~9시)	
심리상담사2급	16주(목, 오후6~9시)	자격증반
장례지도사2급	16주(금, 오후6~9시)	
천연화장품, 비누만들기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성전(중·소교회) 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일반과정
동양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4시30분	

■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춘천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국 3층)
■ 문 의 처 : 본원 사무실 ☎ 033) 241-8801, 8802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원장 김성호 / 부원장 권영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이 은 영 관장
(노인전문요양원)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엡6:5)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노인전문요양원 책임을 맡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재단이 나를 임명하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는다.

양지노인마을은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치매, 중풍, 기타 노인성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 65분을 38명의 직원이 모시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십수년간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신앙인의 한사람으로서,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늘 고민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한다는데 그 당위성이 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덜 가지고있는 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신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계셨다면 아마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일 보도되는 통계자료들을 통해 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이고 관심 사안이 되고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늘어만 가고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 시작단계이고 준비단계라고 봄 수밖에 없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점점 더 늘어가는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있다. 바라기는 이 제도가 실제 수혜자가될 어르신들의 피부에까지 닿아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인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욕구를 채워주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게발논리 앞에 '복지'의 논리와 '나눔'의 논리는 힘을 잃을 때가 많다.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밖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아분들에게는 화려한 옷 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미소가, 값비싼 음식 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인한 고통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누울 수 있는 넓은 공간 보다는 마음의 정을 베푸는 친밀한 관계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어르신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 의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물질적인 만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들은 쉽게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한 평생 살아오며 겪으셨을 아픔을 위로하고 만져줄 영혼의 치유자, 아직도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진실함의 관계형성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갖지못하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소망이 없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 자신의 마음도 무거워진다. 어르신들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일상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어르신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 어르신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려는 노인선교기관이나 교회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다행히도 우리 시설은 정기적으로 예배와 노력봉사를 담당하며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하다. 하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주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좀 더 밝고 희망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그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의 초점도 점차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어르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하겠다. 인생의 종점, 마지막 정리의 순간에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말이다.

오늘도 병상에서 어렵게 음식을 넘기시며, 편마비에도 불구하고 재활을 소망하며,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반추하며, 오늘의 한 시간, 한 순간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 그영혼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하며 기도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

이달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 가장 합당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를위해 한국 교회가 힘써 기도하도록.

· 춘천과 강원도를 위하여

시장, 도지사 및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심정과 지혜와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강원도와 춘천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을 위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 30만 시민을 품으며, 선교단체 모든 기관과 연합하여 진정한 영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특히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진 모두와 새로 선임될 모든 영적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시도록.

· 350여개 춘천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여 이 시대의 복음의 방주가 되도록, 특히 이단과 거짓의 영적인 역사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 춘천과 강원도를 위하여

작년 선교대회 강사였던 이동현 목사를 초청,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춘천시장로교연합회 부흥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로 전설
대표 전 순 천 점시(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점시(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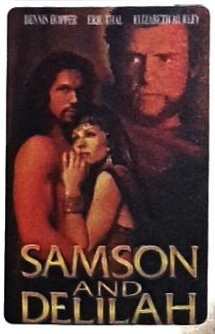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 (3)

삼손과 데릴라

성경의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건의 경이와 감동, 그리고 그 깊은 의미만큼이나 세심하고 치밀한 작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를 깊은 묵상과 영성의 과정을 통해 결정(結晶)되고, 정교한 짜임새로 보다 강하고 깊은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하므로 안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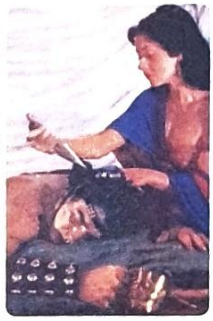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성경 내용을 소재로 만든 <십계> <벤허> <쿼바디스> 등에서 보듯 대작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거기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많은 영상물들이 대개 단순한 교훈적 역할이나 십회보서의 기능만 보여주는데 그치는 안일한 작품들이 양산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신중하고 정확한 선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한 주제에 대한 영화를 두 개 이상 소개하면서 비교해 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영화에서 온전히 큰 감동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지해 왔다. 물론 성경의 내용만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기독교적 진리와 감동을 맛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에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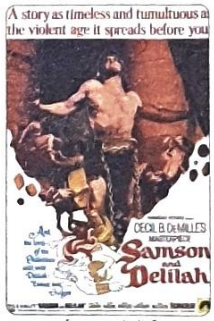




[1996년 作]

성서영화의 대가인 <십계>의 감독 '세실 B. 데밀'도 사사기의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였는데, 그 역시 헐리우드 특유의 오락성을 가미한 화려한 의상과 무대세트, 그리고 적절한 대본과 편집을 통해 전형적 모험담 속의 영웅으로 삼손을 그려내었다. 1949년 만든 <삼손과 데릴라>는 빅터 마추어라는 육체파 배우가 삼손 역으로, 헤디 라머(Hedy Lamarr, 데릴라역)와 안젤라 랜스베리(Angela Lansbury) 등 당시 고혹적 매력을 자랑하던 여배우들을 함께 출연시켜 비교적 오락성 강한 성서영화를 만들었다. 당시의 기술력 한계 때문인지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해 스펙터클한 규모는 되지 못하였지만 재치 있고 깔끔한 각본으로 역시 거장으로서의 흡인력 있는 연출을 보여주었다. 데릴라의 계교에 의해 머리털이 잘려 체포된 삼손이 머리털이 자란 후 양팔에 묶인 두 기둥을 괴력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유명한 이 영화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특집 드라마로 공중파 TV에 자주 방영되고 있다.





[1949년 作]

헤리포터 시리즈에 덤블도어 교수로 유명한 마이클 갬본이 젊은 시절 출연한 니콜라스 로에그 감독의 동명 영화는 1996년 만들어진 TV영화로 170여분짜리이지만 역시 스케일이 크지 않고 사사시대 당시의 유대인과 블레셋인들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각본에 조금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완성도가 떨어진다. 삼손의 캐릭터가 빅터 마추어에 미치지 못하지만 삼손의 영적 내면과 회개의 과정이 비교적 깊이 표출된 편이라 하겠다. 엘리자베스 헐리가 데릴라로, 현재도 유명한 배우 테니스 호퍼가 블레셋 장군으로 출연하였다.

헐리우드의 거장들과 명배우들이 성경 영화를 진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만들면 대체로 커다란 감동의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삼손과 데릴라>의 경우 현대의 다른 감독이 지금까지 보다 근육질 강한 배우를 삼손 역으로 하여 더욱 강한 캐릭터와 첨단 기술로 더 놀라운 영상미와 박진감 있는 작품으로 리메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해봄직도 하다.

[편집위원 김춘배]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협 301037-52-193771 조영준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준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촌감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니교회
사암중앙교회	서춘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새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에클침례교회	에당장로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명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국민일보춘천지사	강원기독언론연구소(김기태)
앤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자연유치원	제시뉴욕 김길홍
김학철 김명숙	김준언 김진삼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온 신성균
신종철	심인섭 임희방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국정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최예석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 미 교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점포

주거/상업/기기
DTPi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시식, 관력
- 판 촉 : 캘린더, 머그컵, 우니폼, 티셔T, 각종판촉물, 행사기념품(타올/우산등)
- 현수막 : 각종현수막, 실사현수막

"주님만이 내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십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칼 럼



쉬운 길을 경계한다!

고 재 만 목사
춘천명안교회 / 본보편집위원

사람의 마음이 일을 하다보면 꾀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쉽게 하는 길이 없나하고 찾게 마련이다. 좋은 의미로 하면 그렇게 해서 훨씬 일이 간편해지고 편리한 도구나 기계들이 발명되곤 해서 의도한 바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런데 모든 일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기에 쉬운 길을 찾는 것이 힘겹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에도 도전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차선책을 찾는 일에 익숙해 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쉬운 길을 걸어서 될 일만 있겠는가? 치열한 노력과 험한 도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그런 길을 포기해 버리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QT를 하거나 설교준비를 하면서 갖는 생각이다. 분명 '쉬운 길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많은 시간을 드려가며 씨름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물론 꼭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좋은 묵상이 되거나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도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깊은 생각을 요한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힘들 때가 있기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혹 쉬운 길을 택해서 마음이 홀가분하고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경우가 있지만 - 그래서 계속 그런 길을 찾지만 - 쉬운 길에만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힘겨운 사역이 또는 일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은 아니다. 깊은 맛이 있다. 그렇게 땀 흘린 자 만이 맛볼 수 있는 희열이 있다. 그 희열을 맛본 사람은 오히려 힘겨운 도전을 찾아낸다. 그리고 도전한다. 정상의 자리에 있어본 사람들이 더욱 그렇다.

산악인 엄홍길, 박영석, 한완상 씨가 그렇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산악인들이다. 8000m급 14좌를 다 정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이 이제는 없다. 올라갈 산을 다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도전한다. 더욱 어려운 길을 찾는다. 힘들지만 쉬운 길을 찾은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힘겨운 일에 도전해서 얻은 기쁨을 맛본 자는 쉬운 길을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만든다. 신앙도 그렇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또 다른 은혜를 위해 짐을 진다.

❀ 알려드려요

◆어린이전도협회
1) 가을학기새소식반 강습회
일시: 9월 10일 ~ 11월 26일 매주월요일
오전반10:00~오후1:00 저녁반7:00~10: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5층추수홀
등록금: 3만원(핸드북, 특강교재, 간식)
전도자료: 말씀-모세시리즈, 선교-말굽량이 선더
전도자료세트: 5만원(새소식반 교사에게만 판매가능)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리더모임)
일시: 10월 13일(토) / 중학교(오후1시), 고등학교(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타4층예스컴 사무실
2) YES, COME PRAISE (청소년찬양집회)
일시: 10월 20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김한철 목사(예스컴 양평지부 협력간사)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세계기도의날
일시: 10월 9일(화)
장소: 원주CCC회관
2) 전국 캠퍼스 간사수련회
일시: 10월 16일(화) ~ 18일(목)
장소: 서울CCC본부
3) 춘천CCC 홈커밍데이
일시: 10월 27일(토)
장소: 춘천CCC회관
4) 기도순장수련회
일시: 10월 27일(토) ~ 28일(일)
장소: 서울CCC회관
문의: 254-5776
※CCC어린이집 교사모집 1인
문의: 010-9533-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2007 우슬림을 위한 30일기도
일시: 9월 13일(목) ~ 10월 12일(금)
회지: 권당 2,000원
문의: 033)252-1128, 010-7152-0135 이선희 간사

◆IVF
1) 강원간사 연합모임
일시: 10월 10일(수) ~ 11일(목)
장소: 원주 IVF 회관
2) 전임감사 훈련
일시: 10월 15일(월) ~ 19일(금)
장소: 성주훈련원
3) 연합기도회
일시: 10월 26일(금)
장소: 예수촌교회

◆JDM
1) 창립30주년 감사축전
일시: 10월 3일(수) 오전10시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문의: 252-3192 / 010-9054-3192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10월 1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삼광교회
발씀: 김병선 선교사(중앙아프리카 카메룬)
2) 가을Wycliffe School 전국 Retreat
일시: 10월 2일 ~ 3일(화 오후9:00~수 오후12:30)
장소: 천안 여명교회
3) 춘천위클리프스쿨
일시: 9월 10일 ~ 11월 26일 매주월요일 오후 7시
장소: 대전 새로남교회
강사: 이성우, 조광주, 김영미, 윤누가 선교사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GBT춘천지부 사무실 - 운교동 CBS옆 대용빌딩 2층 에덴교회 내 [chuncheon@v2025.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월) 오후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몸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월) 오후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팡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일목사)

◆UBMK(울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일시: 10월 4일(목) 오후7시30분
장소: 소양성결교회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주관: 춘천기독교 연합회
문의: 256-1260~1

◆2007년 춘천시 장로교연합회 부흥회
일시: 2007년 10월 28일(주일) ~ 31(수) 오후 7시
장소: 춘천제일교회(박상호목사시무)
강사: 이동현 목사(광주 평화장로협회)
제직세미나: 10월 30일(화) 오후2시
목회자세미나: 10월 31일(수) 오전10:30





■ 일가상 수상식



가톨릭상지대학교 정치와 법 김영기 정치학의 뜻을 이어받아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훌륭한 인격으로 존경받고 있는 국내외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17회 일가상 시상식이 9월 8일(토) 오전 11시 천주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열렸다. 수상자로는 농업부문 (주)대바목종 윤희진(61) 대표, 사회공익부문 미카엘라 신티아고 수니는 필리핀 출신으로 1967년 한국에 온 후 전쟁고아, 여공 등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 통일나눔터 기도회



통일한국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통일나눔터는 9월 8일 오후5시 거성교회에서 모여 2학기 개강하며 예배를 드리고 10월 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과기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기도하였다. 통일나눔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5시 거성교회에서 모인다.

■ 함께하는 세상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홍창표)은 9월 12일(수) 오후1시 본 기관에서 인터넷 쇼핑몰(주)바리엔유와 함께 아동보호기금전달식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바리엔유는 의류 세일 판매로 생긴 수익금의 일부를 아동보호기금호기금으로 지원하였다. 이날 1시부터 3시까지 한림대학교 내에서는 '바리엔유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요보호아동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및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Fire again 부흥의 불길이 춘천에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 이원호목사)가 주최한 '살기 좋은 춘천, 시민과 함께 하는 2007 춘천신교대회'가 9월 2일부터 8일까지 다채롭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를 주제로 선교부흥회와 선교 · 성시대회, 영역별변혁운동세미나, 산상기도회, 기아체험 난민걷기대회, 찬양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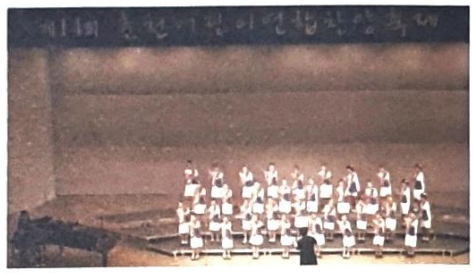


2일부터 5일까지 오후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열린 선교부흥회에서는 2일 "이단동향과 대책"을 주제로 이용호목사(한기총이단대책위원장)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 상영과 함께 이단 사이비 경계와 예방에 대해 강연하였다. 3일부터 3일간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가 "성령과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 등에 대한 주제로 재미와 열정, 깊이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과 춘천시민들을 사로잡았다.

6일 ~ 7일까지 '거룩한 도시 - 변혁과 창조'를 주제로 선교 · 성시대회가 한림대 국제회의실 등지에서 열렸다. 변혁한국의 국제대표 루이스 부쉬, 탐 빅터 목사가 함께 하고, 일본동경성시화운동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국제선교 · 성시대회에서는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 영역별 지도자 오찬세미나, 성시세미나, 창조도시 포럼 등 다양한 영역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7일 밤 봉의산에서는 춘천을 축복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인 8일 오전11시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기아체험 난민걷기대회'가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춘천시민 약2천여 명은 약 10㎞거리를 걸으며 난민체험을 하였다. 이날 오후 4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는 제14회 춘천어린이연합찬양축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사회복지단체후원을 위한 찬양축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 이원호목사)가 주최하고 춘천홀리클럽(회장 : 이학규장로)이 주관한 '제1회 사회복지단체 후원을 위한 찬양축제'가 9월 18일(화) 오후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찬양으로 주님을 증거 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찬양축제에는 춘천성시합창단, 원드비전강원어린이합창단, CBS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춘천쥬리데오사모합창단이 함께 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빛을 밝혔으며, 광림사회복지재단과 White&Rose가 출연하여 자리를 더 빛냈다.

■ 신종쥐팥쥐 인형극



도담인형극단은 9월 18일, 20일 오전11시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종쥐팥쥐" 인형극을 선보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담인형극단은 지난 9월 14일 홍천공연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강원도 영서지역 9개 시·군 순회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홍보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 살기좋은 도시를 향한 월례포럼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창조도시 시민포럼(상임대표 : 박의범)은 9월 21일(금) 오전7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월례포럼을 개최하였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서는 박경립 교수(강원대학과 공과대학 건축학부)가 강사로 초청, 발제 후 다양한 정책 대안을 위한 그룹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취재 · 김 미경

Joseph's English
조셉 잉글리쉬
시작하는 순간, 생생영어가 입에서 "톡-톡"
생각이 바뀌면 쉬운 길이 보입니다.
원어민수준의 발음으로 따라하기와 동시통역사의 순발력있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 원어민과의 실제 대화법 노하우 공개
■ 오전 해외 생활에서 얻어온 Network 을 활용, 영어코스에 얽어지는 지름하고 실속 있는 장단기 영어연수/선교여행 등 실제적인 실습 기회 제공
기초 회화반 오전 10:00-12:00 월,화 Class / 수,목 Class
본격 회화반 오후 07:00-09:30 월,화,목,금 Class
10년간의 전문통역사
-Waitemata Health Board 국립병원
-World Gospel Bible College 신학교 강의통역
전문 번역사
-뉴질랜드 현지 [illegible]NZ Ltd. 통번역회사 운영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Translation and Liaison Interpreting
다양하고 풍부한 영어지도 경험
-North Shore English Academy 강의
교육학,목회학 전공
-BCNZ 뉴질랜드 신학대학
문의 : Tel. 033)256-6114, 252-1004 CP.010-3857-6114 본원 : 효자1동 373-83 춘천경찰서 뒤 효자소방서 옆 예광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 곳 대원당"
항긋한 빵 냄새가 가득한 대원당으로 오세요.
행복을 드립니다.
"대원당은 1986년 창립 이래 37년간 오직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왔습니다."
37년을 하루같이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담아 제품을 만들었으며,
고객의 신뢰와 사랑 속에 본점, 명동점을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늘 여구하는 자세로 품질의 고급화와 고객 서비스를 실행하여
제빵문화의 개척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 자 점 (남부로터리방향)
춘천시 효자2동 679-16 TEL: 254-8187, 251-4123
명 동 점 (동서백화점 입구)
춘천시 조양동 679-16 TEL: 255-0008, 254-7733
DAEWONDANG
SINCE 1986